

“입장료 만큼 상품권”...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 ‘첫 유료화’

입장료 3천원 내면 전액 영광사랑상품권으로 환급

축제장·영광 전역서 사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영광군이 오는 9월 개최하는 '제23회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부터 처음으로 입장료 금액 만큼 영광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입장료 유료화'를 추진한다.

1일 영광군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제1회를 시작으로 23년 역사를 지닌 영광불갑산상사화 축제는 연간 40만명이 방문하는 국내 대표 가을꽃 축제로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 22년간 무료로 운영했지만 올해부터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입장료를 처음으로 징수한다.

입장료는 일반 3000원이지만 영광군민과 5

세 미만 아동, 장애인·국가유공자·임산부·축제 관계자는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무료입장 대상은 관련 신분증이나 증빙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축제추진위원회가 징수하는 3000원 입장료를 낸 일반 관광객에게 해당 금액만큼 영광사랑상품권 지역화폐로 전액 환급해 준다.

상품권은 축제장과 영광 전역에서 사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는 '상사화 꽃길 속으로, 천년의 사랑 속으로'라는 주제로 오는

9월15일부터 24일까지 불갑산 관광지 일원에서 열린다.

축제 기간에는 상사화 꽃길 걷기·상사화 미디어파사드·상사화 달빛야행·상사화 소원의길 등 대표행사를 비롯해 각종 공연·전시·체험행사가 펼쳐진다.

영광군 관계자는 “올해부터 시행하는 입장료 상품권 환급은 영광군 수의 증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 상권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한 결정인 만큼 관광객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광군은 입장료를 징수하는 만큼 관광객들이 만족스러운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축제장 안전관리와 관광서비스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영광=서희권기자



목포시, 2023 로컬콘텐츠페스타 '대상' 수상

지역 로컬콘텐츠 테마관 운영 우수 지자체 선정

목포시가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열린 '2023 로컬 콘텐츠 페스타' 시상식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2023 로컬 콘텐츠 페스타는 지난 달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이 참여해 지역의 우수한 콘텐츠를 홍보함으로써 로컬 콘텐츠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Play The Local'이란 주제로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

로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서 목포시는 지역 특산품과 관광자원 등 다양한 지역 콘텐츠를 활용해 목포만이 가진 매력 홍보에 집중했으며 특히 목포의 문화자원과 비파 등 로컬 자원을 상징하는 다양한 아이템을 콘텐츠화해 전시·홍보하고 이를 활용한 참여 이벤트도 추진하여 방문객에 큰 호응을 얻었다.



시 관계자는 "목포시가 가진 다양한 고유 문화·예술 자원이 경쟁력있는 로컬콘텐츠로 인정 받았다. 앞으로도 목포의 로컬 매력이 널리 공유되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목포=기동취재본부

영암군에 스마트 복지·안전 행정복지센터 생긴다

행안부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 지원사업' 선정, 국비 4,400만 원 확보

영암군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사업'에 선정, 국비 4,400만 원을 확보했다.

행안부의 이번 공모는 주민 생활현장과 가까운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복지와 안전의 최일선으로 삼아 주민을 편리하게 해줄 IT 기능을 강화하는 사업.

지난 1월 행정안전부는 '국가 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읍·면·동 안전관리 기능 강화 계획의 하나로 지원사업을 공모했다.

여기에 전국 33개 지자체가 신청했고, 영암군은 최종 선정 22곳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지원사업 선정으로 영암군 서호면행정복지센터가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 개선모델 개발에 나선다.

서호면은 민·관·아 스마트안전협의체를 꾸려 사물인터넷(IOT) 돌봄 플러그 설치, 마을안전지도 제작 등 복지·안전 시각지대 발굴·지원과 선제 예방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영암=조대호기자

신안군 1004섬 아이들 뉴질랜드 어학연수 떠난다



여름방학을 맞아 신안군에서는 (재)신안군 장학재단 주관으로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1개월 일정으로 뉴질랜드 어학연수를 위하여 오를랜드 ELM Park School로 8월 2일 출국 했

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관내 초등학교 6학년 학생 중 어학연수를 희망하는 학생 모두에게 기회를 주어 영어지필 및 구술시험을 치러 최종 30명

을 선발하였다.

한편, 영어학습 동기 부여 및 영어 활용능력 향상 도모, 국제적 사고 함양 등 글로벌 인재육성을 목표로 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코로나19로 4년 만에 재개되어 대상자 선발 과정에서부터 많은 관심이 집중되기도 하였다.

어학연수 참가 학생들은 8월 2일부터 8월 28일까지 약 4주간 뉴질랜드 오를랜드 일원 현지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진행하며 평일에는 ELM Park School에서 현지 학생 수업에 참여하고, 방과 후 활동에도 참여하게 된다. 주말에는 문화 활동·역사 체험을 하는 등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일정을 준비하였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신안군은 '섬'이라는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얻고 새로운 외국문화 체험으로 국제적 안목을 넓히는 등 타 지자체보다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보여준 해외연수 프로그램이 앞으로 더욱 발전되어 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신안=이덕주기자

함평군, 돌머리해수욕장 뱀장어 잡기 체험 성황

함평군이 최근 깨끗한 갯벌과 아름다운 낙조로 유명한 돌머리해수욕장에서 뱀장어 잡기 체험 행사를 개최해 관광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함평군은 "함평군 뱀장어협회 후원으로 지난달 22일, 29일 총 2회에 걸쳐 뱀장어 180kg을 방사하고 뱀장어 잡기 체험 행사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체험행사는 함평만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깨끗한 바다를 관광객들에게 알리고자 마련됐다.

아울러 올해 돌머리 해수욕장에는 해수 풀장과 어린이 물놀이장, 해수찜 치유센터, 무지개 빛갈 갯벌 탐방로 등 즐길거리가



한층 늘어나 뱀장어 잡기 체험 행사를 더욱 풍성하게 하였다.

오호석 함평군 농어촌공동체과장은 "앞으로도 관광객들이 돌머리해수욕장에서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함평=김광춘기자

아세요?
한수원이 요즘 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